

영암 '사라진 쌍둥이' 태어난 적 없었다

경찰, 가짜 엄마 검거...불법체류 아이 해외 배달하면 돈 준다는 브로커 말에 허위 출생신고

“두려움 느껴 해외 운반 안해” 인우보증인 추적 수사 확대

영암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이었다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추정됐던 쌍둥이 형제(광주일보 2019년 1월 24일자 6면)는 사실상 태어난 적도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이 불법체류자의 아이를 자국으로 보내기 위해 가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 불거진 사건이었다.

경찰이 출생신고서에 쌍둥이 엄마로 등록된 20대 여성을 붙잡았는데 “불법체류자 아이들의 엄마로 위장해 특정국가에 데려다 주면 돈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경찰은 다만, 이 여성이 실제 쌍둥이를 낳은 뒤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출생신고서에 ‘인우보증인’으로

기재돼 있는 제3의 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4일 전남경찰청과 영암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경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던 쌍둥이 엄마 A(여·2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으나, 허위 출생신고로 확인됐다.

A씨는 2012년 11월 미혼인 상태로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이날 초영암 초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이들이 불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 방임 혐의를 받아들였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난 2012년 인터넷에서 고수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에서 40대 남성을 만나 허위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쌍둥이의 허위 출생신고로 주민번호를 받아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여권을 만든 뒤, 해외 모처까지 직접 데려

다 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른바 ‘불법체류 아이 배달모’ 역할을 하려한 것이다.

실제 쌍둥이를 낳지 않았던 A씨는 행정기관에 허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집에서 쌍둥이를 낳았다고 알리바이를 만든 뒤, 인우보증인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쌍둥이를 출생신고한 것은 비행기 요금 등 운반비용을 고려해 한번에 동일국가 아이 2명을 운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허위출생 직후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을 해외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거부했으며, 브로커로부터 받기로 한 150만원도 받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영암읍의 한 아파트로 거주지를 신고해 놓은 탓에 올해 취학연령이 된 허위 쌍둥이는 영암 지역 학교로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많은 경기도 등에선 A씨 사례처럼 허위출생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불법체류자의 아이를 해외까지 배달해주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없고, 국내에서 교육을 받거나 살아가기도 힘들다”면서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국적 아이로 둔갑시켜 자국의 친인척에게 보내는 이른바 아이 배달모 아르바이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를 공전자기류 등 불실기재죄(허위출생신고)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 쌍둥이 출생신고의 인우보증인의 신원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유사한 범죄 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참여 구금 이병수씨 무죄 확정 이어 검찰 직권재심청구로 첫 형사보상금 받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수(62)씨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형사보상금을 받는 첫 사례자가 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이희동)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후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최근 이씨에게 29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이씨는 1980년 5월 21일 해남에서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와 김대중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

섰다가 소요죄 등으로 기소돼 같은해 10월 24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112일간 구금됐다.

이씨는 그동안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해 별도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검찰이 직접 나서 재심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12월 38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직권재심청구를 통해 이씨에 대한 무죄선고를 이끈 광주지검은 형사보상금 결정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이씨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는 등 힘을 보탰다.

한편 이씨는 당시 갑자기 구속되면서 운영하던 정과 도매업체가 사실상 도산했고, 영창에서 허리 등을 폭행 당해 수십년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경 긴밀 협조로 조폭 7개파 28명 구속

‘광주 보복폭행’ 일당 일망타진

검찰이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을 통해 7개파 28명을 구속하는 등 조폭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 등으로 수도 권 6개파 조직원 28명(구속 23명·불구속 5명)과 광주지역 조폭 7명(구속 5명·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인지역 폭력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사이 광주 북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광주지역 폭력조직원 A(24)씨의 뺨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폭력 조직원

들은 앞서 같은 날 새벽 3시께 서구 한 술집 주변 골목에서 인천 폭력조직 조직원 B(25)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인지역 폭력조직원들은 ‘인천지역 조폭 B씨가 광주조직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광주로 내려와 집단 행동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폭력조직원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최초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판례 및 법리를 사전 검토와 함께 총 113회(5700여쪽)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193건의 영장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 직후 전국으로 흩어진 조폭 일당을 모두 검거해 사건 발생 한달여만에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문화가족 설 한마당 행사 24일 광주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설 한마당' 행사에서 베트남에서 이주 온 여성들이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전통 춤 공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117억원 횡령 골프장 직원 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골프장에 근무하며 1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박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결재 과정에서 입출금을 기록한

회계 전표만 검토하고 법인통장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회사통장 4개에서 자신의 계좌로 11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뒤 30억원만 재입금했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회원권 분양 대금이거나 운영비, 골프장 증설을 위한 대출금 등이었다.

박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

을 다시 따 채워놓을 생각으로 회사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7년 9월 골프장에 입사한 뒤 지난해 1월부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박씨가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의 가짜 명품 핸드백 가져간 여성 “술 취해 내 것인줄 알고...”



○...만취한 50대 여성이 동네가게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의 가짜 명품 핸드백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갔다가 경찰서행의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50)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6시40분경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슈

퍼마켓 앞 의자에 놓인 김모(여·69)씨의 현금 43만원이 든 가짜 꾸러미핸드백을 가져갔다는 것.

○...이씨는 두달여 간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그 핸드백이 내 것인줄 알고 가져 갔다.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11(금) ~ 21(월)
- 전형일: 2019. 1. 24(목)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D.S.W.)	○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형일: 2019. 2. 8(금) 오후 2시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형일: 2019. 2. 8(금) 오후 2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민음에 있는 대학 · 민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